

성경론 ㄷ

성경이 주어진 목적: 딤후3:16-17

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교훈(NIV의 teaching)이 아니라 교리(doctrine)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교리에 달려 있다(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성도들을 위한 기본 교리

1. 성경
2. 삼위일체 하나님
3. 아버지 하나님
4. 그리스도
5. 성령님
6. 사탄과 천사들
7. 사람
8. 죄
9. 구원
10. 교회
11. 예언(종말론)

대부분의 신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리: 성경에 관한 교리(Bibliology)

1. 성경에 관한 교리(Doctrine of the Bible)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죄인의 운명과 신자의 행복을 담고 있다. 성경의 교리들은 기록하고 그 훈계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들은 바꿀 수 없다. 성경을 읽어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 안전을 얻으며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여 기록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지탱할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할 위로를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사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장이다.

성경 안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하늘이 열리며 지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요, 우리의 행복이 성경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이다. 자주 그리고 천천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이 네 기억 속에 박히게 하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며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라. 성경은 부의 보고요, 영광의 낙원이요, 기쁨의 강이다. 네가 살아 있을 때에 주께서 이 성경을 주셨으니 또한 심판 때에 이것을 펴시고 영원토록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성경은 최고의 책임을 요구하여 수고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주되 그 안의 기록한 내용들을 무시하는 자는 다 지옥 불로 정죄할 것이다. - 작자 미상

I. 성경(Bible)이란?

A. 성경의 정의

1.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말 'Biblos'에서 유래되었으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여러 책을 모은 전집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일관된 이야기'(History)이며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담은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말씀들=단어들'
2.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기록한 '한 책'(One book)이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을 언급할 때 '성경 기록'(마21:42; 벧후1:20), '거룩한 성경 기록들'(롬1:2), '율법'(요 12:34),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눅24:44),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마5:17), '옛 상속 언약'(고후3:14) 등으로 부른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니다.

B.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거

1.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히 1:1-2). 그러므로 신구약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이다(신6:17; 시119:89; 잠30:5-6; 렘23:29; 마5:17-19; 마22:29; 막13:31; 행17:11; 롬10:17; 딤후3:15-17; 벧전1:23-25; 벧후1:20-21; 계 22:18-19).
2. 시19:7-11, 성경 말씀의 여섯 가지 특징, 사람의 여섯 가지 변화

C. 성경의 구성

1.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성경으로 나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 영어 단어(구약 609,247단어, 신약 179,011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시편 119편(176절)과 에스더 8장 9절이고 가장 짧은 장과 절은 시편 117편(2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2단어)이다. 성경의 중간 장은 시편 117편이며 성경의 중간 절은 시편 103편 1, 2절인데 그중 1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로 되어 있다.
2. 구약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모세오경(Torah, 토라(교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b. 대언서(Nevim, 느빔(대언서)): (a) 전기 대언서(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b) 후기 대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열두 개의 소 대언서)
 - c. 거룩한 기록들(Ketuvim, 케투빔(기록)): (a) 진리(시편, 잠언, 욥기), (b) 다섯 개의 두루마리(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c)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3. 신약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절과 장의 구별이 없었다. 고대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후 9세기경에 절을 표시했다. 성경의 모든 책을 장으로 나누는 것은 주후

13세기경에 휴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후 1551년에 스테파누스(스테판)는 신약성경에 절을 붙였으며 그 후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었다.

D. 성경의 주제와 내용

1.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0년경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다.
2.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엡1:4-6; 요 20:30-31; 요일5:20; 계4:11).
3.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준다.
4.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5.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 책이다.
6.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한다. 사람은 이런 권위로 편견 없이 이런 책을 지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7. 끝으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요14:1-9).

E. 성경 기록의 계시와 영감과 보존과 번역과 해석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 a.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준다.
- (2)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말은 참으로 합당하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을 불어넣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 (3) 보존은 하나님의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말씀의 보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며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시12:6-7).
- (4) 번역은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다. 구약시대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에도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 (5) 해석은 진리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신비주의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다.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이며 역사적인 해석을 취한다. 문법적 해석이란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역사적 해석이란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F. 성경 기록의 정경

1. 정경은 측량하는 막대기로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표준 잣대’인 정경으로 사용되었다.
2. 유대교와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으며 천주교회의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3. 또한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다수 본문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왔다.
4. 정경은 사람이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하며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은 공회 등의 기구를 통해 정경을 인정할 뿐이지 정경을 정하지 못한다.
5.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이 났다. 신약성경의 경우 주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수용하였다.

G. 성경의 확산과 보편적 성경

1. 처음으로 세상에 잘 알려진 영어 신약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인 1370년경에 나온 위클리프 성경이다. 그 뒤 인쇄술이 발명되고 1526년에 처음으로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인쇄되어 나왔고 1535년에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을 포함한 성경전서를 발간하였다. 그 뒤 커버데일과 다른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매리 여왕의 압제를 피해 제네바에 거하면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간하였고 그 후 1611년에 제임스 왕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위한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지난 400여 년간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는 표준 성경이 되었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최고조에 이른 때에 당대의 석학 50여 명이 원어에서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으로 단 한 번의 수정 없이, 단 하나의 오류 없이 당당하게 세월의 풍파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며 문학적으로도 영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히브리어 전통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축자적으로 완벽하게 번역하여 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표현하여 말 그대로 모든 성경의 표준이 되었다는 데 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같은 현대 역본이 쏟아져 나오 고 있지만 이것들은 한결같이 부패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비평 본문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수천 군데에 오류를 담고 있고 특히 축자적, 형식적 일치 번역이 아닌 동적 일치 번역이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H. 성경의 영향

1.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되고 팔리고 영향을 미친 책이다. 실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경만큼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은 없다.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은 지금까지 2,000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어디서나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화인이라 불리기 힘들 정도로 폭넓은 영향을 미쳐 왔다. 다른 종교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이런 경전이 없다. 성경이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그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숨결 때문이다.
 2.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들의 시도는 모두 허사로 드러났다. 볼테르(AD 1694-1778) 같은 인본주의 불신자들의 성경 무용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을 값없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생명의 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영원한 미래가 올 때까지 성경은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의 지옥 심판의 경고를 주며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막 9:42-50; 눅12:4-5; 요3:16; 5:24; 17:17; 20:30-31).
8. 성경의 총 주제 그리스도: 요20:30-31, 요일5:20

성경론 2

성경의 전달 과정: 계시, 영감, 보존, 정경, 번역, 해석, 적용

두 개의 본문, 바른 성경, 부패된 성경

계시(Revelation):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

A.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함(기도원 등의 계시 No!).

1.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계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알 수 없다. 계시에는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시를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 성경의 계시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 a. 망원경적인 측면: 성경은 멀리 셋째 하늘에서부터 땅 속의 지옥까지 또 만물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여 준다.
- b. 현미경적인 측면: 성경은 하나님, 사람, 마귀, 죄, 구원, 미래의 일 등을 자세히 보여 준다.
- c. 입체 사진경적인 측면: 성경은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의 모순도 없이 연결되는 것을 사방에서 입체로 보여 준다.

2.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

3.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B. 하나님의 계시 방법(히1:1)

- 1. 천사들을 통해서(창18, 아브라함, 이삭 탄생, 소돔과 고모라 멸망 예고, 단9 가브리엘, 70이레)
- 2. 큰 소리로(창3:9-19, 아담에게, 렘1:4-5, 예레미야)
- 3. 작은 소리로(왕상19:11-12, 엘리야)
- 4. 자연을 통해서(시19:1-3)
- 5. 나귀의 입을 통해서(민22:28)
- 6. 꿈으로(창28:12, 베냐민의 야곱, 마1:20 요셉)
- 7. 이상(vision)으로(사6:1-6, 이사야, 행9:10 아나니아)
- 8. 우림과 둠뿔으로(출28:30, 민27:21)
- 9. 제비를 통해서(레16:8 속죄 염소, 행1:26, 맛디아)
- 10. 주의 천사: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현현으로(창32:24-30, 야곱, 삿6:11 기드온)
- 1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C. 일반 계시

- 1. 범위의 일반성: 모든 사람에게 도달함.
- 2. 방법의 일반성: 사람 속의 양심과 하늘의 해, 달, 별 등을 다 포함함.
- 3. 신학상의 자연성: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와 사람.
- 4. 성경 속의 예
 - a. 시편 19장 1-6절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시8:3-4).
 - b. 로마서 1장 18-32절은 사람의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 줌(18절 중심).
- 5. 일반 계시의 내용
 - a. 하나님의 영광(시19:1), b. 하나님의 권능(시19:1), c. 하나님의 뛰어나심(롬1:20),
 - d. 하나님의 선하심(마5:45, 해와 비), e. 하나님의 지성(행17:29), f. 하나님의 존재(행17:28)

6. 일반 계시의 제한성: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곧 사람의 죄성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매장,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7. 일반 계시의 가치

a.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 줌.

b. 일반 계시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줌.

c.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줌: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과 진리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심.

D. 특별 계시

1. 정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a.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친밀히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계시임.

b.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성경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임.

* 예수 그리스도(요1:14), * 여러 사건(출애굽 사건, 발람의 사건, 민22장, 미6:4-5)

* 우림과 둠뎀: 이것들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착용한 가슴 판에 달린 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됨(출28:30), * 하나님의 현현, * 꿈과 환상들(창20:3의 아비멜렉의 꿈, 사1:1 이사야의 환상)

* 제비를 뽑는 것(잠16:33), * 대언자들(슥1:1), * 천사들(눅2:10-13, 목자들과 천사들)

D. 계시의 특징

1. 객관성: 창조의 일반 계시든지 기록된 말씀의 특별 계시든지 계시는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임.

2. 명제성(특별 계시): 단어와 말을 사용한 진리 진술문이 문서로 기록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다음 세대로 넘겨 줌.

3. 특별성: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특별히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고 사람은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어짐.

4. 성경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 권위를 부여함.

5. 하나님께서 저자이시므로 권위가 있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같은 구절이 구약성경에만도 700번 정도 나옴.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적으로 인식되어 이해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제를 띄고 있음.

7. 분명한 사실: 계시는 진실 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음.

성경론 ㉓

영감(Inspiration): 진리의 기록 과정(욥32:8; 딤후3:16)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오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 같은 필요를 만족시킨다(맥쿤, McCune).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숨(영)을 불어넣는 것을 뜻한다.

영감(inspiration): 영어 'inspire'는 'in' + 'spirit', '영을 넣는 것' 혹은 '영이 들어가는 것' 에디슨: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3:16).

성경 신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총체적 축자 영감'을 믿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사상에 영감을 주시지 않았고 모든 단어에 영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 있는 말씀으로 대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4:4).

A. 영감에 대한 혼동

1.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inspiration).
2. 성경의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verbal inspiration).
3.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verbal, plenary inspiration).
4.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영감을 믿는다(verbal plenary, inerrant, infallible inspiration).
5.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모든 면에서 무제한적으로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영감을 믿는다(verbal plenary, unlimited inerrant, infallible inspiration).

B.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1. '모든'(All)은 라틴어로 '플레너리'(plenary)이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등을 의미하며(잠30:5, 롬15:4 비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의미함. "총체적"
2. '성경 기록'은 그리스어 '그라페'(graphe)에서 나옴.
 - a. 이 단어는 '기록하다'를 의미함.
 - b. 그러므로 이 단어는 기록된 말씀(단어)을 의미함.
 - c. 이는 '말로 주신' 영감(verbal inspiration) 곧 축자 영감을 의미함.
 - d. 성경 기록이야말로 영감의 목적이며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의 목적임.
 - e. 그러므로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지 결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음.
 - f. 그러므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지 결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님.
 - g. 성경의 모든 말씀(each word)이 축자영감으로 기록되었음(마4:4; 출24:3-4; 사30:8)
 - h. 개역/개정개역처럼 모든 성경이 아니다. No!
3. '하나님의 영감'
 - a.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쎄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쎄오스'(theos)와 '숨을 쉰다'는 의미의 '(프)네오'(pneo)의 결합, "하나님이 숨을 불어내신 것 혹은

숨을 불어 넣으신 것”

- b. 위클리프와 틴테일은 이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inspired of God)이라 번역했음 (inspiration에 in과 spirit이 있음을 유의하라. ‘영’은 호흡, 숨을 뜻한다).
- c. 개역/개정개역은 ‘감동으로’, 영감 자체가 없다.
- d.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 e.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신정통주의에서 주장하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다.
- f.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신정통주의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념 영감’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개념적으로 영감 받은 것이 아니다.
- g. 성경의 모든 말씀(단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신(넣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주신대로 기록된 것이다.
- h.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의 모든 단어를 선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하였ek.
- i. 예: *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믿는 정통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명령대로 따라 적기 혹은 구술에 의해 받아쓰기’(dictation)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4. “교리와...유익하고”

- a. 성경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 교리의 확립
- b. 교리 연구에서 구약성경을 무시하면 안 됨.
- c. 극단적 세대주의에 입각하여 구약성경은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됨.
- d. 극단적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면 전도하거나 믿을 필요가 없음.

C.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 1. 반드시 성경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야 함.
- 2. 성경의 교리들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함.

D. 영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영감이란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 2.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 3.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감이란 자필원본에만 적용되는 말이다(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즉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숨을 쉬며 불어내심에 따라 대언자나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였다.

E. 잘못된 영감

- 1. 자연적인 영감: 셰익스피어의 책과 같은 종류
- 2. 개념 영감, 3. 부분 영감, 4. 영적인 영역에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영감
- 5. 기계적 영감: 사장이 불러 주는 대로 사무원이 적는 것처럼 적는 것(벧후1:20-21)

F. 영감의 범위

- 1. 성경 전체(마5:17; 딤후3:16)
- 2. 단어들(시12:6-7; 마4:4)
- 3. 점과 획(마5:18):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이 22개의 자음으로만 구성되었고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읽는다. 1. 알레프, 2. 페



트, 3. 끼멜, 4. 팔레트, 5. 헤, 6. 봐브, 7. 자인, 8. 헤트, 9. 테트, 10. 요드, 11. 카프, 12. 라메드, 13. 멤, 14. 눈, 15. 싸메크, 16. 아인, 17. 페, 18. 차데, 19. 쿼프, 20. 웨쉬, 21. 신, 22. 타브(시편 119편)

a. 점은 10번의 요드를 뜻한다.



b. 2번 빼트와 11번 카프를 비교해 보자.

빼트의 하단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획이다.



4번 팔레트와 20번 웨쉬도 마찬가지이다.

팔레트의 상단에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획이다.



G. 총체적 축자 영감의 함축적 의미

1. 모든 구절이 영감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다(삿3:16; 요3:16).
2. 1차적으로 원어에만 해당됨.
3.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됨(오류가 없다). 창3:4의 사탄의 거짓말도 사실
4. 여기에는 상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었음을 뜻한다.

H. 논 의 사항

1. 영감과 번역본의 관계
2. 번역본은 영감을 받지 않는다. 번역본에는 숨(영)이 살아 있다. 그래서 번역본도 살아 있는 말씀
3. 기계적 영감 No! (벧후2:21)

성경론 4

정경(Canon): 진리의 통일 과정

A. 정경의 정의

1. '정경'(canon)이라는 말은 '측량하는 막대기'를 가리킴.
2. 정경은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하는 표준임.
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각각의 책을 진리를 담은 전체 성경의 일부로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책들이 사람의 행위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을 판단하는 '권위 있는 잣대'로 사용됨.
4. 성경 신자들이 정경이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성경의 39권과 신약성경의 27권만을 의미했으며 외경 등은 포함되지 않음.
5. 정경의 본문 형태는 항상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과 그리스어 비잔틴 사본에서 나옴(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신들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내기까지).

B. 역사를 통한 정경의 확립과정

1. 신약성경의 경우 AD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에서 일반적 동의에 이르게 되었음.
2. 구약성경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그 사본들을 간수했으며 정경 작업은 서기관 에스라 시대와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에 끝났음. AD 100년경의 유대인들의 야브네(얌니아) 공회

C. 정경의 발견

1. 정경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2.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책에 영감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3. 성경의 영감은 정경을 요구한다.
4. 교회의 권위는 오직 성경(정경)의 권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D. 정경의 조건

1. 이 책이 권위가 있는가?
 - a. 이 책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등과 같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임을 증명하는가?
 - b. 이 책이 권위 있게 이야기하는가?
 - c. 위경(도마 복음, 바나바 복음)이나 천주교의 외경은 이런 것이 없음.
2.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는가?
 - a. 각각의 책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벧후1:20; 히1:1).
 - b. 각각의 책은 그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는지 판단을 받았다.
 - c. 사도 바울은 위조 편지들을 거부했다(살후2:2).
 - d.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저술했음이 확립될 때까지 많은 논쟁을 겪었다(벧후1:1).
3. 이 책이 믿을 만한가(authentic)?
 - a. 이 책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해야 한다.
 - b. "베레아 사람들은 그 일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행17:11).
 - c. 외경은 신뢰성이 없어서 배척을 당했다.
 - d. 요일4:1-6절에 따라 진리는 반드시 이미 알려진 표준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만 했다.
4. 이 책이 역동적인가?
 - a. 이 책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 b. 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고 역동적이다(히4:12).
 - c.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세워 주어야만 한다(딤후3:16).

- d. 성경은 복음전도에 필요하다(벧전1:23).
- 5. 이 책이 수용되었는가?
 - a.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수용했는가? 최종 문제
 - b. 교통과 의사 전달 수단이 빈약했으므로 이 과정은 수세기 동안 지연되었다.
 - c. 교회의 공회가 어떤 책을 수용했다는 것은 그 책의 정경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다. 공회는 정경성을 확인하였을 뿐이며 증명하지 않았다.
 - d.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들을 수집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만 했다.
 - e. 수용은 초기 수용과 최종 수용으로 분리된다.
 - 1)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 2) 교회의 공회들이 최종 수용함.
 - f.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수용했다(벧후3:16).
 - g. 정경이 아닌 책들은 이런 원칙들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퇴출되었다.

E. 요약과 결론

1. 어떤 책이 정경이 되는 것은 영감 때문이다.
2. 사람의 인식을 통해 드러났다.
3.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경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이용하여 발견하였을 뿐이다.
 - a.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가?(Authoritative)
 - b.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가 썼는가?(Prophetic)
 - c. 하나님과 사람 등에 대해 진리를 말하는가?(Authentic)
 - d.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가?(Powerful)
 - e. 하나님의 백성이 수용했는가?(Acceptance)

F. 논쟁이 되었던 책들

1. 솔로몬의 아가: 인간의 사랑에 대한 시
2. 전도서: 인생무상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3.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4. 에스겔: 모세의 율법과 다른 점이 있다(40-48장).
5. 잠언: 모순이 있다(잠26:4-5).
6.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가?
7. 야고보서: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는가?
8. 요한2서, 3서: 단순한 편지가 아닌가?
9. 계시록: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었다.
10. 유다서: 에녹서를 인용하지 않는가?
11. 하나님은 심지어 세속 시인들의 글도 인용하신다(행17:28의 아라투스과 클레안테스; 딤후1:12의 에피메니테스)
 유다서 9, 14절, 에녹서 인용 No
 얄네와 얄브레(딤후3:8; 출7:11-12)
 3년 반(약5:17; 왕상17:1; 18:1)

마27:9, 예레미야서에는 없다. 스가랴서 11:12-13에 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과 그가 외친 말씀이 있다. 여기는 후자이다(슌7:7).

G. 신약성경 정경의 발전: 정경화 작업을 위한 다섯 가지 이유

1. 책들의 대언적 성격
 - a. 이 책들은 사도나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기록한 것이므로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보존되었다.
 - b. 이 과정은 사도 시대에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하고 널리 알린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골4:16).
2. 초대교회의 필요
 - a.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알아야만 했다(딤후4:13).
 - b. 이들은 권위 있는 책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3. 이단 견해와 싸우는 일
4. 선교의 필요성: 선교를 위해 어떤 책을 번역해야 할지 알아야 함
5. 교회의 핍박: 핍박을 당하자 이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보존해야 할 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H. 외경

1. 외경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됨(BC 270년경, 70인역).
2. 영감은 없으나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성경의 지도와 마찬가지로 부록임)

외경 명단

	외경 이름	연대	내용
1	솔로몬의 지혜서	주전 30년	교훈
2	집회서	주전 132년	교훈
3	토비트	주전 200년	종교 소설
4	에스드라상(*)	주전 150년	역사, 전설
5	마카베오상	주전 110년	역사
6	마카베오하	주전 100년	역사, 전설
7	유딧	주전 150년	로망스 소설
8	바룩	주후 100년	예언
9	예레미야의 편지	주전 200년	예언
10	에스드라하(*)	주후 100년	예언
11	에스텔	주전 130년	전설
12	아사랴의 기도(혹은 세 아이의 모래)	주전 100년	전설
13	수산나	주전 100년	전설
14	벨과 뱀(원래는 벨과 용)	주전 100년	전설
15	므낫세의 기도(*)	주전 150년	전설

(*) 천주교에서도 이 책은 외경으로 인정하지 않음.

I.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비성경적 카톨릭 교리

1. 연옥: 마카베오하서 12장 39-45절
2. 구제(즉 자선 행위)에 의한 구원: 집회서 3장 30절
3. 자살을 인정함(마카베오하서 14장 43-46절)
4. 윤회(솔로몬의 지혜서 8장 19-20절)
5. 마술을 통해 신비주의를 행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있음.
6. 트렌트 공회 이후 1582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펴낸 「두에랭스 역본」은 원래의 구약성경 39권에다

아래 표의 15개 외경 중 12개를 포함시킴(구약이 총 51권이 됨). 참고로 「한글공동번역」에는 ‘예레미야의 편지’ 역시 빠져 있다.)

7. 그런데 트렌트 공회는 매우 교묘하게 외경을 포함시키는 일을 진행하여 외경 15권 모두를 포함시키지 않고 특히 에스드라하서를 뺐음: 왜냐하면 그 책의 7장 105절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임.

J.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1. 이 책들은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a. 요세푸스는 분명히 이 책들을 구약성경에서 제외시켰다.
 - b. 주전 20년에서 주후 50년까지 살았던 필로 역시 이것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한 적이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중 어느 누구도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다.
 - a.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이 마카베오하서 7장과 12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구절은 왕상17:22와 왕하4:35를 인용한 것이다.
 - b. 유다서 14절이 외경인 에녹 서신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구절은 에녹의 말을 인용할 따름이며 분명히 성령님께서서는 에녹이 한 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에녹 서신을 인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c. 어떤 이들은 딤후3:8이 외경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할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의 마술사의 이름을 언제든지 보여 주실 수 있으므로 이 구절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야브네(얌니아) 공회(AD. 100년경)에 모인 유대인 학자들은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대부분의 교부들이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외경의 어느 책도 스스로 영감 받았음을 주장하지 않는다.
6. 외경의 많은 책들이 역사적, 지리적, 연대기적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
7. 외경의 많은 책이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된다.
8. 외경의 책들의 형식은 전설적이며 공상 만화 같다. 어떤 이야기들은 매우 괴기적이며 마귀와 연관이 있다.
9. 외경의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위와 같은 뚜렷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 않다.
10.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된 외경들은 - 라틴어로 현존하는 단 한 가지만을 빼놓고- 동양의 예의범절, 언어, 견해와 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고대 문서’로서의 가치만을 지닐 뿐이다.
11.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지 부록으로 넣었다.(그 당시의 관습)

성경론 ㄷ

보존(Preservation): 진리를 보호하는 과정

A. 보존의 정의와 의의

1.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셔서(넣으셔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마4:4).
3. 하나님께서 섭리로 말씀을 보존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소실되지 않았다(대부분의 현대 학자들은 소실되었다고 믿으며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약성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 a. 영감은 1차적 기적인데(단기간) 비해 보존의 수단은 2차적 섭리이다(장기간).
 - b. 사람의 책임은 자기가 받은 본문을 보존하는 것이다.
4. 현대 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필 원본의 영감만 믿는다고 한다. 사본/역본의 보존 No!
5. 말씀의 유익과 보존(딤후3:14-16): 성경 기록들, 모든 성경 기록,
6. 예수님, 행8의 에티오피아 내시 모두 사본을 읽음.
7. 성경 기록이 보존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요5:39-40).

B. 성경에서의 예

1. 왕하22:8-20, 대하34:14-16
 - a. 신17:17-19, 요시야 왕 시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 책들을 발견함(BC 675-622년). 아마도 사악한 므낫세 왕은 바알 숭배를 확립하려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떠나려고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파멸시키려고 함. 요시야는 언약의 말씀을 읽고 언약을 지키기로 하고 우상을 제거함.
2. 렘36:1-32
 - a. 사악한 여호야김 왕(요시야의 아들)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첫째 사본 즉 자필 원본을 불사름.
 - b.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 다시 한 번 '주의 말씀'을 기록한 뒤 왕에게로 가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고 말씀을 대언함(렘36:4; 20-23; 27-28; 32).

C. 보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구약
 - a. 시119:89
 - b. 시119:152, 138:2
 - c. 사40:8
 - d. 시12:6-7
 - e. 필사 방법: 유대인(롬3:1-2), 구약의 글자 수, 28억 개, 밀러의 복사 원칙
2. 신약
 - a. 마5:18
 - b. 마24:35
 - c. 벰전1:24-25

D. 성경의 경고

1. 신4:2; 12:32
2. 잠30:5-6; 렘26:2

3. 계22:18-19

E. 보존의 증거

1. 보충 설명: 자필 원본, 사본, 자필 원본의 보존이 아니라 사본의 보존
2.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말씀의 보존을 믿으심, 기록된바(It is written): 마4:4, 6, 7, 10
It is written 신약에만 총 63회, “지금 기록되어 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심(마24:35).
4. 마귀는 창조의 시작부터 성경 말씀을 변개하려고 애쓴다. 역사적 사실
 - a. 의심(창3:1)
 - b. 변개(창2:17, 3:4)
 - c. 추가(창2:17, 3:5)
 - d. 추측(창4:8), NIV, 등 “우리가 들로 가자” 추가
5. 약 5,800개의 고대 그리스어 사본의 99%가 보존된 전통 수용 본문임(라틴어 사본 10,000개, 다른 나라 역본 9,300개, 총 약 25,000개).
6. 두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한다(히브리어, 그리스어 모두).
 - a. 다수 사본: 보편적 본문, 공인(수용) 본문, 비잔틴(동방), 안디옥 본문, 종교 개혁 본문
 - b. 소수 사본: 국지적 본문, 비수용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천주교 본문
 - c. 1880년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공인 본문(1885년의 영국 개역성경, 1900년의 ASV)
 - d. 구약 시대는 제사장/서기관, 신약 시대는 영적인 제사장들인 성도들에 의해 보존됨(고전3:16-17).
성도들은 부패한 사본은 아예 내버림.
 - e. 영어의 경우 1970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킹제임스
 - f. 그 전 사람들은 완전한 성경이 없었던 말인가?

F. 보존에 대한 관찰

1. 보존이 없는 영감은 아무런 가치도 없음.
2. 질문: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사 ‘절대 확실’한 성경을 필사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그 성경 기록들을 완결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가?
3. 관심 사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느냐, 보존하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4.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치 현재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최종권위 성경도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5.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과 그분의 능력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줄에서 60 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 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며 따라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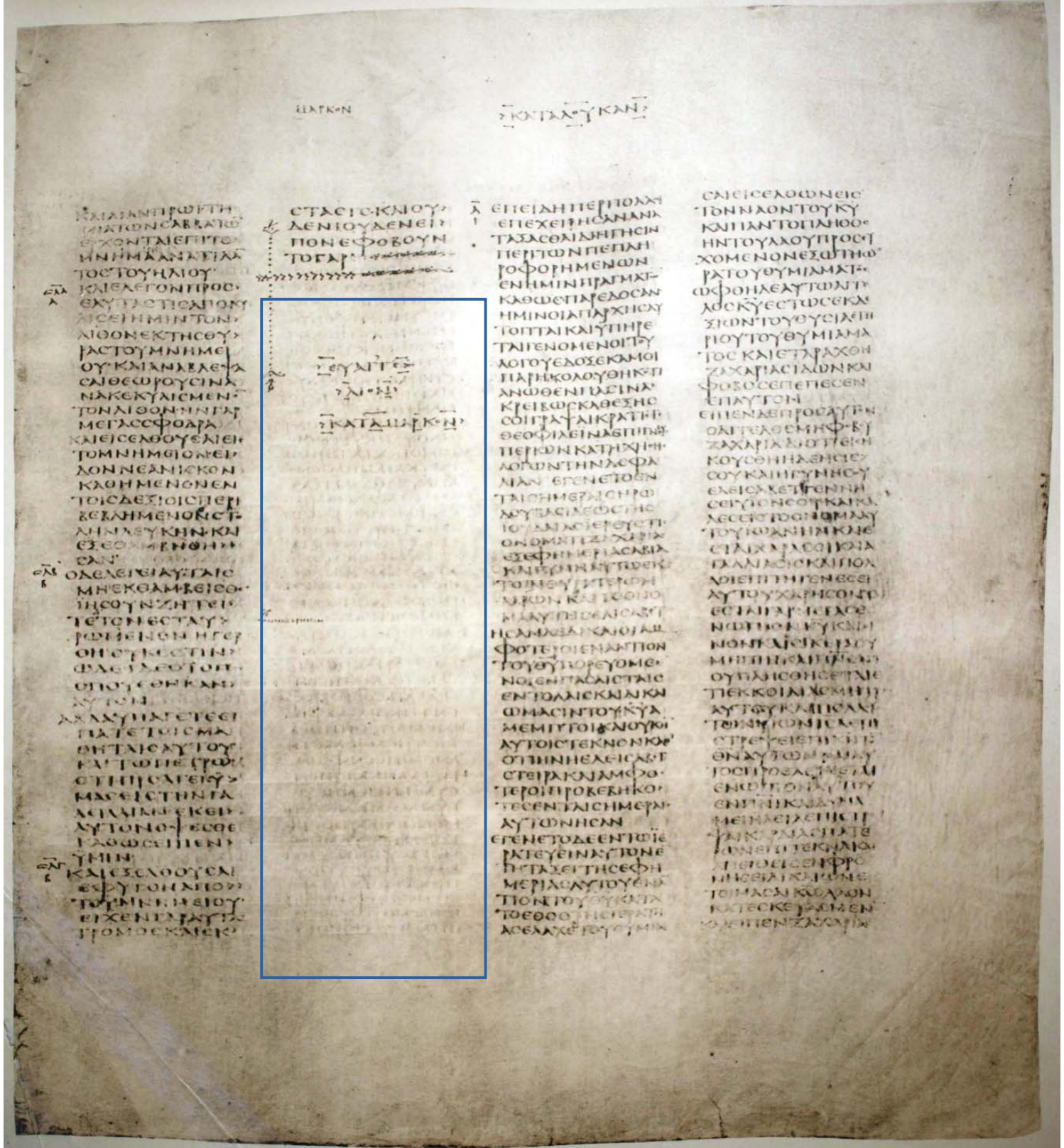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시내 사본: 마가복음 16장 9-20절

서기관의 명백한 사본 조작



-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
- 9-20절 단락은 아주 오래 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졌음

성경론 ㉞

번역(Translation): 진리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과정

A.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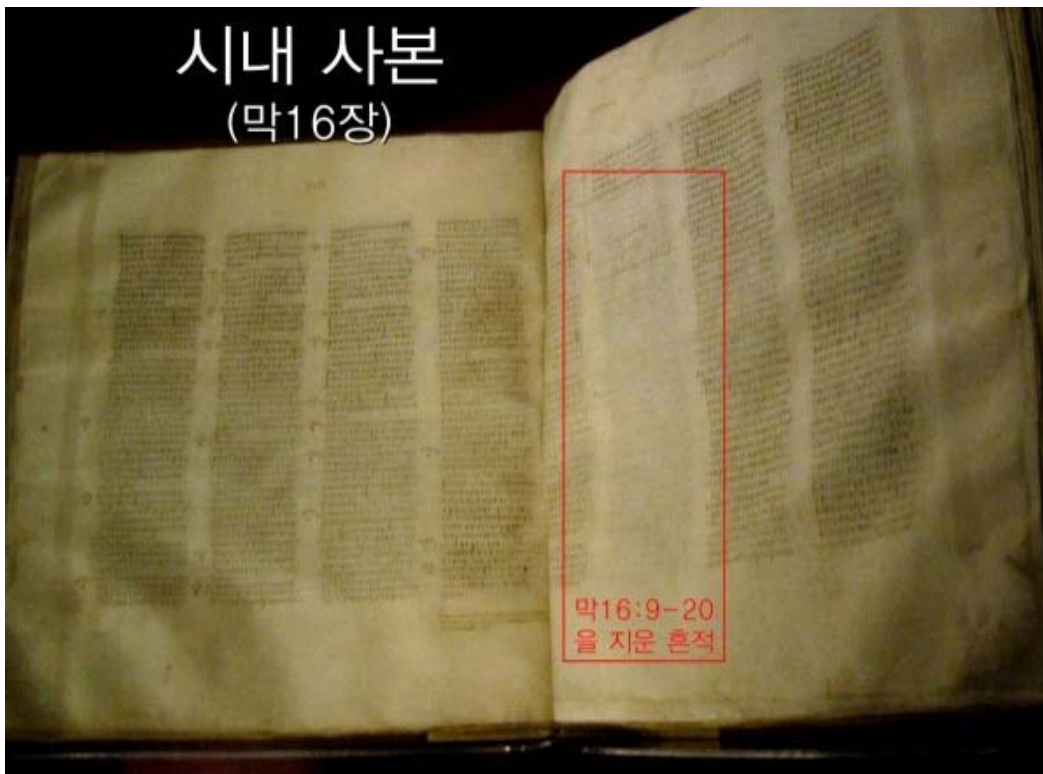
1. 번역이란 한 언어로 기록된 말씀들을 다른 언어의 말씀들로 옮기는 것이다.
2.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작업이 필요치 않았으며 신약시대의 2세기까지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치 않았다.
3.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번역해야만 했다.

B. 성경의 예

1. 서기관 에스라는 히브리어 본문에서 읽은 뒤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주었다(느8:8).
2.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막14:9)

C. 번역 대본(Text)

1. 신약 성경 사본들, 본문(Text)
2.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 행8:37; 요일5:7
3. 어떤 본문을 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함, 막16:9-20절, 1800개 사본 중 3개(바티칸, 시내), 99.8%



4.

구절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개역성경
마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없음)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u>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u>	
막10:21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u>십자가를 지고</u>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막10:24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애들아, <u>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의</u>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골1:14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 피를</u>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딤후6:5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u>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u>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D. 기법

1.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 기법

- a. 최근에 유진 니다가 개발한 기법으로 축자 영감 즉 단어 단어가 영감을 받았음을 믿지 않고 개념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본주의 기법(이렇게 해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뜻과 사상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함).
- b. NIV가 대표적인 동적 일치 성경임.
- c. 한국의 한 신학자가 NIV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막14:5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분 봉급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98년 6, 7월호 「목회와 신학」).” 하나님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심.
- d.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 치 봉급’, ‘10평’,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 부분만 ‘1년 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는가? ‘축자 영감’(Verbal or word inspiration)에 대해 이처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 기법

- a. ‘원본의 단어 단어가 영감을 받았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해서 번역자는 각각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단어 대 단어의 형식적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번역한다.
 - 1) Ye, you, John 3:7,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 2) Thou, thee, 하나님께 대한 용례, 고어가 아니라 성경을 담기 위한 언어이다.
- 3) 'for to'(77회), Acts 8:27, And he arose and went: and, behold, a man of Ethiopia, an eunuch of great authority under Candace queen of the Ethiopians, who had the charge of all her treasure, and had come to Jerusalem for to worship.

b.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마음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원래의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번역하는 작업만을 수행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번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역자들이 첨가한 단어들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섭리적 보존을 믿고 그와 같은 원칙 하에서 동적 일치 기법을 피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드높여서 근 4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영어 자체를 형성하게 하는 기초로 만들어 주셨다.

E. 번역자

- 1.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 현대 역본 역자들은 자유주의 인본주의자들이다(에텐동산, 마귀 부인, 진화론 수용, 마리아 및 연옥 수요, 유아세례 중생, 창세기 부인, 기적 부인).
- 2. NIV의 몰렌코트: 동성애 지지
- 3. 샬머니즘: 귀신
- 4. 유대교의 유일신(Monothelism): 하나님은 한 분(약2:19)

F. 문제점

- 1. '이중영감설', '향상된 계시',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영어 성경으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본문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교리는 주로 렉크맨과 그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바로서 성경 역사를 통해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에서 라틴 벌게이트라는 번역본으로 원본을 교정할 수 있다고 믿은 것과 비슷하다.
- 2.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성경으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3. 원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 a. 영을 괴롭게 하는 것, 바람을 잡는 것(전1:14 등, vexation of spirit, a chasing after the wind), 원어는 동일하지만 번역은 완전히 다르다.
 - b. 원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나 사전 편집자가 최종 권위: 거의 대부분 불신자
 - c. 그리스어 하플로테스(haplotēs)
 - d. 미션 소프트웨어의 딜릭스 바이블. 원어 게임에 빠지면 패가망신
 - e. 킹제임스 성경 표준 잣대

그리스어 '하플로테스'(haplotēs)의 번역 용례

	구절	번역 예
1	고후9:11	Bountifulness(후함)
2	고후9:13	Liberal(너그러움)
3	고후8:2	Liberality(너그러움)
4	롬12:8, 고후1:12	Simplicity(단순함)
5	엡6:5, 골3:22	Singleness(단일함)

성경론 ㄱ

해석(Interpretation):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A. 정의

1.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3.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맥쿤)
4. 성경 신자들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한다.
 - a. 문법적: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 6000년 전 창조, 창세기 하루(출 20:8-11), 천년왕국(계20:2,3,4,5,6,7, 총 6회)
 - b. 역사적: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이사야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 교회의 출생 마16:18, 하늘의 왕국(마태에만 32회))
 - c. 신학적: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해석한다(구약성경, 롬1-8, 9-11, 12-16장).
 - 1) 예: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겔37:1-10과 11-13)
 - d. 겔47:성전의 물, 1000큐빗(발목), 1000큐빗(무릎), 1000큐빗(강), 6-12, 율3:18, 슝14:8, 계22:2의 약재
5. 현대 신학자들은 역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 a. 진화론 같은 현대 비평 이론들을 이용하여 성경 본문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 1) 모세오경의 JEDP 이론(Jehovah, Elohim, Deuteronomy, Priestly), 창1: 엘로힘(창조주), 창2: 여호와(인격자, 구원자) 등, 주전 4세기경에 에스라 등이 편집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역사), 출애굽기, 신명기(율법), 레위기(희생제도) 등을 다루므로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막12:26(출2:3-6). 행3:22(신18:15), 롬10:5(레18:5).
 - 2)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마8:17(사53:4), 마13:14(사6:9-10), 마15:7(사29:13))
 - 3) Q 문서 가설 등: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문제, 독일어 Quelle(원천)
 - b. 성경 내 책의 저자를 무시하고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했다고 주장한다(모세오경, 마태, 마가, 누가 등등).
 - c.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드워드 힐즈, 68-74쪽) 참조, 무료 PDF
6. 성경 해석의 황금률: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

적용(Application): 진리를 실행하는 과정

A. 딤후3:16-17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靈感)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B. 롬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C. 고전10:1-13

1.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1절).
2.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탐한 것같이 악한 것들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려 하심이라(6절).
 - a.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7절).
 - b.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어 넘어졌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8절).
 - c.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9절).
 - d.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10절).
3.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함이니라(11절).

D. 생각할 점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은혜와 진리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두며 생활해야 할까?
엡4:14; 딤후2:15, 진리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성경론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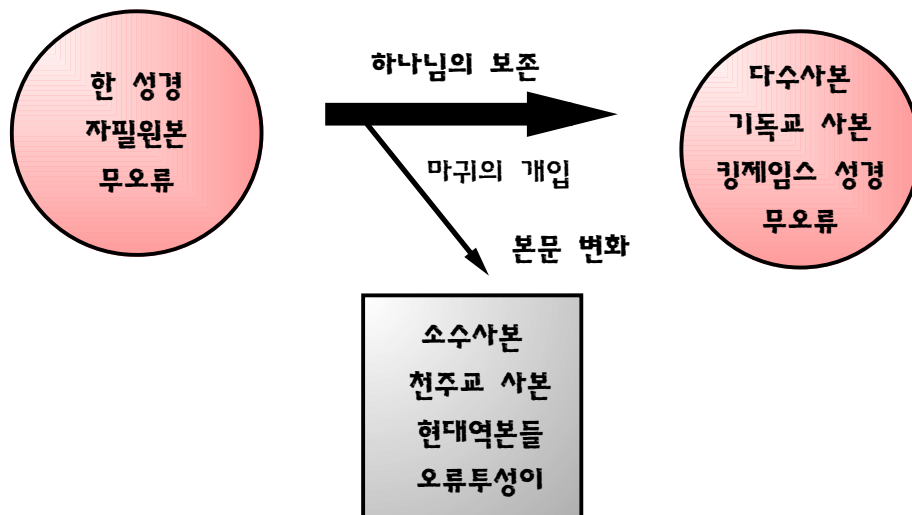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가?

1. 문제: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 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9:44,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골2:18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 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 게 하려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 를 7절에 넣었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2. KJB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역본은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번역되어 내용이 KJB와 다르다.

신약성경 본문은 두 종류다: 전통 본문, 수용 본문, 공인 본문, 다수 본문, 종교 개혁 본문
 약 5,800개의 고대 그리스어 사본의 99%가 보존된 전통 수용 본문임(라틴어 사본 10,000개, 다른
 나라 역본 9,300개, 총 약 25,000개).

영어 킹제임스, 독일어 루터, 프랑스의 올리베땅, 스페인의 레이나 발레라,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반면에 개역성경, NIV, NASB 등은 수정/비평 본문을 사용한다. 소수, 천주교, 국지적 본문

무어맨 박사는 수용 본문과 네슬레/알란드 본문(27판)의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다 세어
 보았다.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단어가 수용 본문보다 무려 2,886개나 부족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삭제한 단어보다 934개가 더 많음을 뜻한다(1,952개 대 2,886개).
 삭제된 2,886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베드로전후서(8장)를 만들 수 있다.
 - 웨이트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수정본문」 비교〉

	공인 본문	수정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경
변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구약성경도 마찬가지, 모두 마소라 사본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마소라 본문도 두 종류이다.
 마소라 본문의 마소라, 마소라는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 주전 400년부터 사용됨,
 즉 마소라 본문 = 전통 본문

마소라가 명사로 쓰일 때는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 온 사람들, 모음 표시,
 여호와, JHWH

WTR, Water, Waiter, 마소라들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준
 사람들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1524-1525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성경, 「벤 카임 마소라 본문」

현대역본들의 구약성경 본문은 대개 1937년에 나온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텔”(BHK) 3판을
 사용한다. 이것은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 20,000~30,000 군데가 다르다. NKJV 등은
 1967/1977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온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BHS)를 사용
 하는데 이것 역시 「벤 아세르 마소라 본문」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 등의 문제에서 늘 핵심은 본문이다.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의 차이 역시 구약의 본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bung-eo pang tle-i da-rda. geu-seo da-reun bung-eo pang-i na-o-da.”

3. KJB는 성도의 믿음과 실행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이다.

1. 우수한 본문: 전통 히브리 마소라, 그리스어 공인 본문

2. 우수한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성경 말씀의 보존 확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Bible believer,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 창고로서 거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또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의 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거나 혹은 한두 번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 단지나 기름병이 아니며 누구나 배부르게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한 자요, 더욱이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껍질을 까서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를 보는 것과 같다.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길는 것과도 같은 작업이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물을 길 수 있는 두레박이 없는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욕구를 자제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처럼 귀한 보물을 밟지 말라. 또한 개처럼 거룩한 것을 물어뜯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그분께서 손을 내미사 당신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라.

현대역본들의 역자들: 성경 보존 불가능, 불신자가 다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에덴동산, 마귀 부인, 진화론 수용, 마리아 및 연옥 수요, 유아세례 중생, 창세기 부인, 기적 부인.

NIV의 몰렌코트: 동성애 지지

루돌프 키텔(1853-1929): 튜빙겐 대학(인본주의 대학), 아들 게르하트 키텔(1888-1948)도 언어 학자, 그는 독일 나치의 옹호자, 반유대인주의 선구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썬이어(Joseph Henry Thayer):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T>, 유일교도, 삼위일체 부인, Vance Smith

브라운(Francis Brown, 미국 유니온 신학교, 독일 유학) 드라이버(Samuel Rolles Driver, 영국개역성경 개정 위원) 브리그스(Charles A. Briggs, 유니온 신학교, 독일 유학, 그가 속한 장로교회에서 이단 판정, 모세5경의 저자 부인, 이사야서 저자 부인 등): The Brown-Driver-Briggs Hebrew and English Lexicon

현대 역본지지 원어 학자들의 대부분이 이단, 이교도 사상, 인본주의 진화론

3. 우수한 번역 기법: 동적 일치 기법, 형식적 일치 기법

4. 우수한 신학

성경론 Ⅱ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랜드마크: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움직이거나 훼손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의 랜드마크는 성경이다. 이것이 변하면 문제가 생긴다.

주후 300년 이후부터 영어 성경 번역 움직임

1380년 이후로 영어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 시작함.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밖에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뻗어 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화시켰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궁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궁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스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4쪽, 1989).

마귀는 성경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려 한다.

천주교, 예수회, 본문 비평, 소수 본문, 이들에게는 여전히 본문이 변하고 있다. 즉 랜드마크가 변하고 있다. 믿음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니시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경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변경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완전한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
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개역개정)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이
책자의 뒤표지 참조).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완전한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 성에서 동성애 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뒤틀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
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
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는 활발한 성경 판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게 의해 많이 이름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곱을 나타내는데 이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수차례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완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 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던져 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마귀나 교황이나 천주교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유진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이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바른 신학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피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락을 바꾸어 신약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번개시킨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시킨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KJB		NIV, 개역성경 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	삭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이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완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뿔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의 회개의 고백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7. 불신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반대한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